



'옥자' 보려면 여기로 오세요

광주
광주극장·광주 자동차 극장
전남
고흥 작은 영화관
구례 자연드림시네마
장남진 시네마
전북
전주 시네마타운 등 11 곳

멀티플렉스 영화관 상영 안해 ... 광주극장 등 호남권 16곳 29일 개봉

190개국 스트리밍 서비스

“영화 ‘옥자’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봉준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옥자’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상영이 불발됨에 따라 상영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 스크린의 98%를 점유하고 있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체인이 영화 상영을 보이콧. 그만큼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은 열악한 상태다.

15일 현재 제작사측은 일단 멀티플렉스관이 아닌, 서울 대한극장 등 개인 극장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작은영화관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79개, 103개 스크린을 확보했다. 광주를 포함한 호남권에서는 매일 1회를 상영하는 광주극장을 비롯해 모두 16개 극장에서 ‘옥자’를 만날 수 있다.

광주는 광주극장과 광주 자동차 극장 2곳에서 영화를 상영하며 전남은 고흥 작은 영화관 등 3곳, 전북은 11개 극장에서 ‘옥자’를 만날 수 있다. 이중 전남 진 시네마 등 4곳에서는 4K 고화질로 상영된다.

멀티플렉스의 ‘옥자’ 상영 거부는 ‘옥

자’의 제작비 약 5000만 달러(한화 578억여 원) 전액을 투자한 동영상 플랫폼 업체인 넷플릭스가 오는 29일 극장 개봉과 함께 190개 국가에서 동시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멀티플렉스 3사는 기존 영화 산업 구조에서는 먼저 극장 개봉을 하고 보통 3주 후 IPTV 서비스를 진행해왔지만 ‘옥자’가 이런 관행을 깬 것은 유통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영화 상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괴물’, ‘설국열차’의 봉준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옥자’는 강원도 산골 소녀 미자와 10년 동안 함께 지낸 동물 옥자의 우정을 그린 이야기다.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날, 글로벌 기업 미란도가 갑자기 나타나 옥자를 뉴욕으로 끌고 가고 미자가 옥자를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70회 칸 영화제 경쟁부문에 공식 초청됐으며 틸다 스윈튼, 제이크 질렌할, 폴 다노, 안서현, 릴리 콜린스, 변희봉, 지안카를로 에스포지토, 스티븐 연 등 할리우드 배우들과 국내 배우들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29일 개봉하는 영화 '옥자'

▲광주&호남권 상영관

광주극장/고흥 동리시네마/고흥 작은영화관/광주 자동차 극장 구례/자연드림시네마/무주 산골영화관/부안 마실영화관/완주휴 시네마/임실 한마당

작은별 영화관/장수 한누리시네마/전주 시네마타운/장흥 정남진 시네마/조이엔 시네마/김제 지평선 시네마/순창 천체의 공간 영화산책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학기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

광주시립합창단 29일 문예회관
온 가족 즐길수 있는 가요 합창



◀박학기



▶임한귀

광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임한귀)은 학구적인 프로그램과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무대에 올리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음악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에는 시립합창단이 싱어송 라이터 박학기와 함께하는 공연을 준비했다. 또 엑소의 '오르람', 클론의 '꿈따리 사바라' 등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요를 근사한 합창곡으로 들려주는 시간도 마련했다. 29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아름다운 세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지난 2015년 가수 윤희주를 초청해 진행한 '7080 콘서트' 두번째 기획이다.

'세노야'로 문을 여는 1부에서는 가수 이문세의 명곡을 메들리로 편곡해 들려주며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격정말야오.

그대를 남성합창으로 연주한다. 1부 마지막에서는 박학기의 데뷔곡 '향기로운 추억', '서른즈음에', 히트곡 '비타민'을 부른다.

2부에서는 남성합창 '대학가요제 메들리'와 여성합창 '그리움만 쌓이네'를 비롯해 클론 '꿈따리 사바라', 엑소 '오르람', 장기하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소'를 흥겨운 퍼포먼스와 함께 선보인다.

끝으로 가수 박학기와 광주시립합창단이 광주시민을 위한 아름다운 세상을 염원하며 박학기의 히트곡 '아름다운 세상'을 연주한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학생 50%). 광주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g.jart.gwangju.go.kr) 예매. 문의 062-613-8245, 823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학들' 여름호 위안부 문제 집중 조명

위안부 다룬 문학작품 소개

일본군 위안부는 기나긴 침묵 속에 갇혀 있던 이름이었다. 누군가 불러 주지 않으면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없다"면서 재협상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물론 취임 이후에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협의해 나가야 하지만 양국 관계가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고 밝혀 이전 정부와는 다른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는 한일 양국의 문제뿐 아니라 인류 보편적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숙의이다. 현

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불과 3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존해 있는 분들도 고령이어서 하루 속히 이들의 상처와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행히 최근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을 비롯, 작가 김숨의 소설 '한 평'과 영화 '눈길', '어플로지', '귀향' 등이 나와 대중적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광주에서 발행되는 대표 문예지 '문학들'(여름호·통권 48호)이 위안부 문제를 조명했다. 특집으로 '긴 침묵, 위안부 관련 텍스트들'을 내세워, 위안부를 다룬 문학작품을 소개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다.

장수희 '바람의 연구자' 편집위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문화적 재현'에서 해방 직후와 한국전쟁 시기에 출간된 세 편의 소설에서 일본군 위안부라

는 존재들이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살핀다. 필자는 왜 학계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침묵했는지를 질문하면서 반성을 촉구하고 본격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차희정 조선대 영어과 교수는 '한국계 미국작가들의 위안부 문제 형상화 방식'에서 노라 옥자 켈리의 '중군위안부'와 이창래의 '체스처 라이프'에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 재현 양상을 고찰한다. 차

교수는 두 권의 소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민족의 문제에서 전쟁과 여성 인권의 전 지구적 문제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한다.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문제 관련 피해자 여성들의 동의 없이 결정된 일본과 한국 정부의 합의안은 진정한 의미가 없는 그저 한낱 제스처에 불과하며, 위안부 문제는 식민 역사적 고통의 상흔이자 여성의 몸에 가해진 폭력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다."

한편 '작가들의 문학사' 코너는 김영지의 '섬에서 섬으로'를 수록했다. 작가는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가두고 다른 삶을 만들어왔는가를 들려준다.

이밖에도 문학들 시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전경 시인과 그의 작품과 올해 5·18문학상 시인상에 선정된 이은정(시), 최지영(소설), 박수진·정미영(동화)의 수상작품과 당선소감 등도 실려 있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향 가족음악회 '젊은 음악가를 위하여'

29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바리톤 정주도 협연 무대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지역 출신 재능 있는 젊은 음악인들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젊은 음악가를 위하여' 공연이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인 김윤지가 지휘봉을 잡은 이번 연주회의 첫 곡은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이다. 이어 바그너가 태어난 아들에 대한 기쁨과 아내를 향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쓴 낭만적인 관현악 작품 '지그프리트의 목가'가 연주된다.

이어지는 공연은 지난 3월 '젊은 음악가'를 위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바리톤 정



바리톤 정주도

선사한다.

마지막 무대는 '승리의 교향곡'으로 불리는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9번'이다. 티켓 가격 전석 만원. 문의 062-524-5086.

/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도의 협연 무대다. 전남대를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에 재학 중인 정씨는 김연준의 '청산에 살리라',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아리아 '나는 이 거리의 만물박사' 등을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실, 20인실 무료이용
- ▶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금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